

요르단청각장애학교

The Special School for th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in Marka, Jordan



박 인 수 / (주)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사)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Park, In-Soo / President, PARKiz architects Inc., Vice President, Korea Architects Institute
ipark@parkiz.com

1. 요르단청각장애학교를 제안하다

캄보디아에 국내 선교단체가 하는 학교의 기숙사를 설계, 감리해 본 적이 있다. 국내와 비교할 때, 어떤 기준과 제도도 미약해 사실 좀 편한 마음으로 했었지만,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재와 공법을 현지화하고, 공사를 지도하기 위해 상당기간 체류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 현지는 건축에 대한 선입견이 별로 없다는 느낌을 받았고, 해외에서 온 건축가에 대한 대우도 상당히 받았던 기억이 있다.

코이카(KOICA)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필자에게 기회가 올 것이란 생각은 별로 하고 있지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사마르칸트의 직업학교 설계 경기 공고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안을 제출했다가 2등 안으로 결정 되었던 게 큰 계기가 되었다. 당시 듣기로는 코이카 내부에서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 그 취지에 공감되어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한번 더 해보기로 결심한 터였다.

요르단의 청각장애학교는 '제안서 입찰'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의 프로세스로 발주되었다. 그러니 제안도 보고, 경력도 보고, 설계가격도 보는 그런 방식이었다. 다행히 본사는 교육시설에 대한 경력이 있었고, 해외 프로젝트 경력도 있어서, 용이하게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청각장애학교라는 프로그램이 국내에서도 흔하지 않은 학교인데다가 경험도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프로젝트 공고를 보고 상당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하였다. 실제로 서울농아학교라는 곳을 두 번 방문하여 선생님들과 인터뷰도 하

고, 학교시설도 둘러보고, 새로운 교사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 해나갔다. 특히 해외에 지어지는 프로젝트라 국제적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매우 열심히 조사했던 기억이 난다.

요르단 암만의 변두리에 있는 마르카(Marka)라는 지역에 대지가 잡혔는데, 이 곳은 부메랑 모양으로 남북방향으로 길고, 대지 내 경사차는 약 5m정도 되는 상황이었다. 3면이 도로에 접하고 한 면은 미국에서 지원하여 만든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었다. 사실 현지에 가보지 못한 상황에서 현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구글링(gogling)에 집중하였다. 다각도로 살피고, 미국 나사(NASA)의 지역정보를 참고하여, 대지에 대한 물리적 이해를 진행했고, 계획안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구성된 본 프로젝트는 학년별로 2개 반씩 있었고, 남녀공학이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조사는 하였지만, 사실 요르단 현지의 교육 상황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관계로 일반적 사항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실내 다목적실의 중요성과 외부활동 그리고 청각장애이므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이 주요 관심사였다.

한편으론 쉽지 않은 대지모양과 단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였다. 공사비가 빠듯하다는 상황을 확인하였고, 효율적인 건설이 되도록 생각을 정리하여야 했다. 현지 공사방식과 일반적 구조방식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재료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 해서 몇가지 단서와 정보를 입수하였다. 결론적으로 단일 건물로 가야한다는 생각과 내부에 빛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지하층을 이용한 대지의 레벨을 극복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일사와 온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발코니를



<당선안 모델링 뷰>

둘러 차양역할과 비상시 탈출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고, 또 한편으로는 현지에서 공사가 일정부분 잘 못되어도 이중 입면역할을 하여 외부에서 잘 모르도록 하였다.

2. 당선 그리고 현지에서 진행

준비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당선이 되었고, 바로 업무가 시작되었다.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가 선정되어 만나게 되었는데 강남대학교의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이었다. 사실 건축가로서 안이 완료되기 전 미팅과 협의는 너무도 감사한 일이지만, 안이 만들어진 이후 만나는 이런 경우는 매우 수세적 자세를 취하게되는 속성이 있다. 왜냐하면, 처음보는 사람에게 자신이 한 일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간의 걱정을 갖고 만나게 되었는데, 이 분들은 특수교육의 전문성이 매우 뛰어났으며, 미리 제안된 안을 검토하고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너무 잘되어 있다'라는 평이었다. 특히, 이 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안에 매우 힘까지 실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 CM(Construction Management)의 역할은 한미글로벌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약간 막연했던 현지의 시공방법과 그간 진행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현지에서 건설이 이뤄지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지나고 나서 이야기지만, 필자로서 매우 중요한 컨설턴트들을 만나게 된 행운이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첫 번째 현지방문을 하였다. 요르단은 사실 평생 갈 수 있을까 하는 나라였고, 당시 국내 인기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방문을 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터였다. 그렇지만, 중동의 요르단은 사막과 더위등으로 이미지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도착부터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1월이었는데, 실제로 추웠다. 사막에는 눈도

내려 희한한 경관을 보여주었다. 암튼 상상속의 요르단은 완전히 달랐다.

현지에서 코이카 소장파 요르단 교육부의 담당자들과 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우선 당선안을 설명하였고, 이에 관한 의견을 듣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미팅에서 큰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이슬람 문화는 알고 있었지만, 남자와 여자를 건물로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지침에 없었다. 그래서 당황하기도 했는데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우선 대지의 형상이 두 개의 건물을 만들기 어려움을 설명했다. 경사로와 정해진 연면적을 감안한다면, 남녀로 교사를 구분하면, 공용시설이 두 배로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부공간이 매우 중요한데, 두 교사로 배치할 경우, 외부공간이 없어진다는 것도 매우 중요했다.

현지 사무실의 직원들과 이야기 해보니, 사립학교는 남녀공학(하지만, 교실을 나누는)을 많이 하고, 공립학교는 남학교와 여학교를 구분 하는게 일반적이란 이야기 듣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일주일 방문기간을 다 쓸 수 없어 현지에서 철야를 해가면서, 자료를 준비하여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물론 현지 사무실도 많은 일을 도와주었고, PMC도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결국, 원안을 유지하게 되었고, 다만, 미음 자형 평면을 기억, 니은 형으로 나누어 남녀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갖도록 하였고, 엘리베이터 1대가 추가되었다.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것이 다행이었다. 안을 지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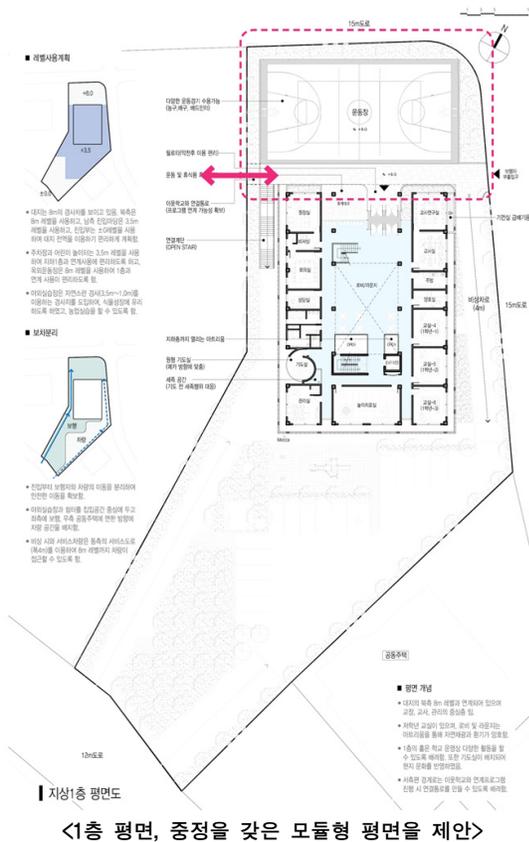


<현지 교육부와 회의광경>

그리고 매 1개월마다 총 4회 현지를 방문하였는데, 성실하게 지원하는 현지업체 덕분에 상당히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직원들과도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다.

두 번째 방문의 가장 큰 이슈는 현지 교육부의 특수학교 관련 기준이다. 갑자기 요르단의 특수학교 설립기준이

있다고 하더니 책 한권을 내밀었다. 나름 내용도 충실하고 연구도 상당히 되어있는 책이었다. 하지만, 이는 청각장애 학교에 관한 기준이라기 보다는 보행약자 위주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기준과 참고하였던 영국기준 'blueprint' 등을 이야기하며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 또한 교육부 담당 국장, 엔지니어들이 숙의 하여 우리 제안을 받아들여 주었다. 다행히 우리 안이 '미움'자 형의 모듈을 제공하고 있어, 조금씩 변경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합의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담장의 높이였다. 여기에는 조금의 타협도 발생하지 못했다. 높이 1.8m 블록 혹은 석재담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하나는 유리로 된 주출입구 부분에 철책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 또한 너무도 완고하였다. 그래서 설계자로서 염려하는 바를 물었고, 예상했듯이 "파손과 침입"의 이유였다. 그래서 내가 담에 한국에 가서 반드시 절대로 파손되지 않고, 침입할 수 없는 필름을 사다주겠다고 까지 했는데도 할 수 없었다. 암튼 이 두가지는 이후에도 아쉬움이 남지만, 현지 관습상 용납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 다음 방문 부터는 교육부와 설계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과 장비, 시설에 관한 내용 그

리고 인허가를 위한 사항들이었다. 요르단의 허가는 세 곳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나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었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있어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암만의 '안전과' 정도로 번역되는 부서에서 허가를 받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구'에 해당하는 '마크(Marka)' 구 사무실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예상대로 교육부는 설계가 끝나고 바로 허가를 받았고, 시에는 협의가 아니고 명령이었다. 군인들이 근무를 하고 심지어 허리에 총을 차고 실탄도 벨트에 꽂아 두었다. 암튼 이 분들이 계단하나의 출입구를 반대로 조정하라는 '명령'을 주어 변경하였다. 현지 사무실에 이야기길 해보니, 그냥 하라는데로 하는게 제일 좋다고 했다. 문제는 마지막 구청 허가인데, 이는 3개월이나 걸리게 되었다. 여기서 허가가 나야 착공을 하는데, 시공사를 선정하고, 두달을 기다려야 했다. 문제는 협의를 통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서류의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렸다. 특히 이 분들은 일찍 퇴근해서 소위 '저녁있는 삶'을 즐기는 인생을 지내다 보니, 서류들의 순환속도가 너무도 느렸다. 한국이 너무 그리운 대목이었다.

암튼 모든 협의를 마치고 마지막 요르단 출장을 통해, 요르단 교육부 담당자와도 좋은 이야기 많이 했다. 특히 최초에 남, 너구분에 있어 매우 강력하게 이견을 제시했던 사항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는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학교의 미래와 청각장애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 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매우 열정적으로 설계해주어 감사하다고도 했다. 매우 훈훈한 이별을 하게 되었다.

3. 알 수 없는 현장

우리의 계약범위는 설계하고 납품하고, 인허가를 현지업체와 진행하고, 성공적인 시공사 선정까지 였다. 국내에서도 감리를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설계자에게 가끔 연락도 오고, 현장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비해, 요르단은 그러기엔 너무도 멀었다.

하지만, 유일한 연락은 학교에 필요한 교사들의 교육을 하는 PMC가 계속 일 년에 두 번 현지를 방문하여 그때마다 전해주는 소식이 전부였다. 처음에는 매우 우수한 현지 시공사가 계약이 되었다는 소식과 건설을 매우 잘한다는 이야기길 전해들었고, 매우 다행이란 생각을 하였다.

그리곤 실제로 건물이 지어지면서 매우 좋은 평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다. 특히, 교육부에서 반응이 매우 좋

코이카와 교육시설

다는 이야길 들었으며, 함께 일했던 현지 엔지니어들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야길 들으니, 너무도 가고 싶어졌다. 하지만, 실행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다. 또한 현지 사무실의 친구는 한번 오면, 요르단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해보겠다며 제안도 하였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지하층과 1층 공사진행 중임, 가설을 매우 잘함>

이후, 사무실의 형편이 좀 여유가 생기면서, 요르단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소위, 자비로 진행한 출장이었다. 혹시, 불편한 존재는 되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코이카 담당자와 현지 CM, 그리고 현지 사무소에서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감사해 하기도 하였다.

현장을 방문하니, 우선 석재의 사용과 시공방식에 많은 차이를 알게 되었다. 거푸집을 사용하는 목재가 부족한 것이 요르단 건설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벽체에 거푸집을 하지 않고, 석재를 쌓고, 그 안에 콘크리트와 철근을 배근하였다. 그러니까 외장 석재가 바로 거푸집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안쪽은 거푸집을 두었다. 이는 벽체의 타설을 두, 세 번으로 나누어 타설하여야 하는 방법이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 목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슬라브도 합판이 없기 때문에 각재를 붙여 깔고 그위에 타설을 하였다. 그리고 나니, 슬라브 하단에 매우 멋진 패턴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를 줄 알았으면, 천정 없이 일부라도 노출을 할 걸 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가지는 색채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설계자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주었으면, 열심히 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사실 창호등에 관한 색상을 '메탈릭 실버' 정도로 생각했는데, 현지에 와보니 '삼페인 골드'로 도색이 완료되어 조립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특히 본 건물은 외부의 핸드레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신경써야 했지만, 이미 시간을 놓쳐 아쉽기 그지 없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길 기대한다.

반면, 매우 좋은 부분도 많았다. 외부의 구성은 레벨을 잘 사용하였고, 특히 현지는 지반이 거의 암반이라, 별도의 가설이나, 구조물 없이 단차 등을 쉽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보니 외부 공간의 구성이 보다 쉽게 편리하게 조성된 듯 하였다. 또한 내부의 핵심공간인 중정이 매우 밝고, 청각장애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중심공간으로 잘 시공이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이슬람 전통과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석재를 다루는 솜씨와 타일을 붙이는 솜씨는 현재 국내의 기술보다 훨씬 완성도 높고, 정성들여 공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실내 중정의 구성과 시스템 비계>



<외부 공사중 광경>

4. 요르단 청각장애학교를 지으며

앞서 서술한 것처럼, 국외 프로젝트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빠른 결실을 맺게 될지는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지에서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는 역시 좋은 협력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현지를 방문하여 요르단대학에서 강연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곳도 역시 건축이 공과대학에 속해있고, 더구나 건축은 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었다. 건축과 교수들은 실무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학교의 건축교육과 실무가 점점 벌어지게 되어, 건축의 발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공무원, 건축주들이 자신들의 짧은 경험과 식견을 이용하여, 건축의 가치를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은 새삼 아쉽게 느껴졌다.

현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은 끝내 남는 아쉬움이다. 지금도 미리 알았다더라면, 현지 사정에 맞추어 좀 더 좋게 마무리 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특히 외국 프로젝트이다 보니, 국내와 달리 좀처럼 갈 수 없으니 답답하기 이를 때 없다.

전언에 의하면, 올 7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내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보다 더 많이 지어졌을 것이다. 완성을 볼 수 없지만, 예측하여, 적어도 요르단의 첫 본격적인 청각장애학교로 부족치 않게 잘 활용되길 기대한다.

KIEF(한국교육시설학회) 2017 추계학술발표회

[주제] 지역과 학교, 그리고 사람을 잇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 화성시 이음터

[행사 개요]

- 일 시 : 2017년 11월 24일(금) 오후 2시부터~
- 장 소 : 삼성래미안 갤러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총민로 17 (문정동)]
- 참 가 비 : 250,000원 (참가 확인증, 발표자료집 제공)